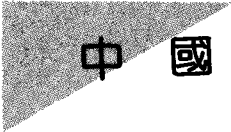


울에 관한 연구서를 준비중이며 10월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카이로의 국가자협회의 기자회견에서 Abaza장관은 체르노빌 사고후에 오염된 식품이 이집트로 수출됐다고 말하고 이 사고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고 했다.

Abaza장관은 이집트가 석유 호경기 시기의 석유대금 초과수입금으로 적립한 「대체에너지기금」으로 9억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총 2억2,500만불의 이 기금 이자는 아스완 댐 발전소가 내년에 저수위로 정지시켜야 할 경우에 이로 인한 전력손실을 메꾸기 위해 14개월내에 건설예정인 3개 발전소의 가스터빈 유니트의 구입과 설치비용으로 배정됐다. 이 댐은 이집트 고원에 내리는 빗물을 받고 있는데 이 고원은 지금 9년째 가뭄이 들어있다.



原子力 平和利用에 注力

중공이 원자력산업의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5월15일의 중국일보(China Daily)는 원자력산업(평화이용)의 생산액을 1980년 8천만원, 1987년 4억3천5백만원이라 보도하고, 1988년에는 5억원, 1990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그 내용은 아이소프트, 자동화재경보기, 건축재료, 야금·경공업 제품 등 10가지 주요생산물이다. 별도로 건설달성액(원자력공업성) 5억원, 省的 스텝에 의한 기술이전·서비스 5천만원이 있는데, 항공우주(평화이용)의 생산액 23억원('87년)에 비하면 아직 수준은 낮다.

중공은 제6차 5개년계획(1980~)에서 군사이용 생산시설의 평화이용 전환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시설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깊은 산악지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출입 곤란, 최신기술로 부터의 소외(구식화) 등이 평화이용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전환자금의 부족문제도 있다.

해외로 부터의 기술도입도 중공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유효한 도입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스위스, 미국, 서독, 일본에서 도입한 화재경보기, 리튬, 음향기기의 생산기술 뿐이다.

중공측에서 본 기술도입의 장애는 먼저 교섭에 시간이 걸리는 점으로서 일본과의 프로젝트(秦山爐관계)에서는 합의하는데 9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중공의 외화부족문제가 있다. 기술과 기기의 수입에는 생산물 수출로 외화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데, 상대 외국기업은 인수할 생산물에 대해 싼 값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약간의 프로젝트는 손해를 보며 거래하고 있다고 중국일보는 한탄하고 있다.

현재 이미 -장래에는 더- 평화이용생산의 최대부분은 원자력발전 관계이다. 안전밸브의 국산화로 외화지불을 1,400만\$ 절약했다. 안전셀의 용접, 철근콘크리트의 생산(秦山爐用)은 국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여 1990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분명히 秦山爐가 국산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다. 군사이용시설의 90%가 평화이용용의 생산을 하고 있으나, 그것도 지금은 각 시설의 일부 이용범위에 있다.

앞으로 다야·베이爐(廣東省, 90만KW 2基)의 경험도 쌓이고 국산화 진전상황도 보아 제 8차 5개년계획(1990년~)에서 제3프로젝트의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중공의 당면 정책인 것 같다. 화석연료의 수송력에 한계가 있어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명백하다.